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신애¹, 방윤이¹, 임윤미¹, 민혜영¹, 박효정^{1,2*}

¹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²이화여자대학교 이화간호과학연구소

Effects of Communication Style with Parent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on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Shinae Lee¹, Yun Yi Bang¹, Yun-Mi Lim¹, Hye Young Min¹, Hyojung Park^{1,2*}

¹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²Ewha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S 도시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의 여대생 151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우울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11월 1일에서 12월 8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35.08(SD=6.83)점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27, p=.028$).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7, p=.030$). 여대생의 우울은 15.86(SD=10.45)점으로 45% 정도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beta=.29, p=.022$).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대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의 정도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맞춤형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on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151 female students in three different universities located in S city. Data collection for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an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were conducted from November 1 to December 8, 201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martphone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was 35.08 (SD = 6.83), and when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was absent and the problem recognized, smartphone addiction was higher ($\beta = .27, p = .028$). Open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lowered smartphone addiction ($\beta = -.27, p = .030$). Depress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was 15.86 (SD = 10.45), and 45% experienced depression. Depression was higher when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was higher ($\beta = .29, p = .022$). Therefore, a customized communication program that focuses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as a strategy to reduce or prevent degree of addiction and depress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will be helpful.

Keywords :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Smartphone, Addiction, Depression, Female college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Hyojung Park(Ewha Womans Univ.)

Tel: +82-2-3277-2872 email: hyojungp@ewha.ac.kr

Received March 16, 2018

Accepted June 1, 2018

Revised (1st April 27, 2018, 2nd May 8, 2018)

Published June 30,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2015년 3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유율은 83%로 나타났다[1]. 스마트 IT 시대에서의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과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학계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2, 3].

스마트폰 중독은 장시간 스마트폰 이용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의존성이 높아져 초조, 불안, 폭력성을 나타내거나 학업, 대인관계, 건강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4, 5]. 스마트폰중독위험 사용군은고위험 사용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군을 포함하는 것으로 20대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2014년 19.6%에서 2016년 22.3%로 증가하였다[6]. 또한 여성의 경우 스마트폰중독위험군은 18.4%로 남성(17.2%)보다 높고, 전년대비 상승폭이 남성의 경우 하락하는 추세이나 여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6]. 이는 여성이 스마트폰중독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독은 안구건조, 거북목 등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6, 7]. 스마트폰 중독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우울 증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9]. 또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고 폐쇄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11].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배우게 되고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13]. 그러나 원활하지 못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깊은 상처를 주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저하시켜 알코올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와의 폐쇄형 의사소통이

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4, 1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은 아동이나 청소년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므로 대학생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16].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생 경우, 실제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4, 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스마트폰중독과 우울에 취약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의 차이를 비교하고, 여대생들이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 1)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스마트폰 중독,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2)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의 차이를 파악 한다.
- 3)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스마트폰 중독,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에 재

학 중인 여학생을 3곳의 대학교에서 편의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모두 계시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1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0, 검정력 .85를 기준으로 독립변수 개수 4개일 경우 최소 표본 수는 140명이 권고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160부(회수율 100%) 중 응답이 불완전하여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9부를 제외한 총 151부(유효회수율 94.4%)를 최종 결과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Barnes와 Olson [17]이 개발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CI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Min [18]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자녀 간 의사소통 20 문항과 모-자녀 간 의사소통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개방형 의사소통과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폐쇄형 의사소통의 2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반반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고, 개방형 의사소통의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폐쇄형 의사소통의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이고 문제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자녀 간 의사소통의 Cronbach's α 는 개방형 .91, 폐쇄형 .71이었고, 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Cronbach's α 는 개방형 .90, 폐쇄형 .77이었다.

2.3.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4].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문항 8번, 10번, 13번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중독 척도 결과 총점 44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40점 이상 43점 이하인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39점 이

하인 경우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3 우울

우울은 Radloff [19] 개발한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Chon 등 [20]이 통합하여 한글판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 증상의 빈도에 따라 ‘드물었다(0점)’에서 ‘대부분이었다(3점)’의 4점 척도로 표기된다. 총 점수 범위는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긍정적 감정을 묻는 5번, 10번, 15번 3개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함). 총점이 16~24점이면 ‘가능한 우울 증 증상을 보이는 군’(probable depressive symptom), 25점 이상이면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가진 군’(definite depressive symptom)으로 선별한다. Chon 등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공동연구자들이 캠퍼스 내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단체, 동아리 등을 방문하여 직접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 참여로 인한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답의 표시로 문구류를 선물로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우울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의 차이검증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우울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31 ± 1.69 세였으며, 2학년이 40.4%로 가장 많았다. 스스로 생각하는 가족관계는 친밀하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매우 친밀하다는 응답이 23.2%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의 경우에는 개방형 의사소통은 평균 33.91 ± 7.26 , 폐쇄형 의사소통은 평균 27.73 ± 6.46 이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개방형 의사소통은 평균 36.71 ± 6.85 , 폐쇄형 의사소통은 평균 27.63 ± 5.81 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평균은 35.08 ± 6.83 으로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13.2%, 고위험 사용자군은 11.3%로 나타났다. 우울의 평균은 15.86 ± 10.45 으로 경미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은 25.1%,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은 19.9%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1)

Characteristics / Categories	n(%) / M $\pm$ SD
Age(years)	21.31 $\pm$ 1.69
Grade	
1	11 (7.3)
2	61 (40.4)
3	37 (24.5)
4	42 (27.8)
Family relationship	
Not very familiar	4 (2.6)
Not nearly familiar	13 (8.7)
Neither	34 (22.5)
Generally familiar	65 (43.0)
Very familiar	35 (23.2)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ernal openly	33.91 $\pm$ 7.26
Paternal problematically	27.73 $\pm$ 6.46
Maternal openly	36.71 $\pm$ 6.85
Maternal problematically	27.63 $\pm$ 5.81
Smartphone addiction	35.08 $\pm$ 6.83
General user group	114 (75.5)
Potential risk user group	20 (13.2)
High risk user group	17 (11.3)
Depression	15.86 $\pm$ 10.45
Normal	83 (55.0)
Probable depressive symptom	38 (25.1)
Definite depressive symptom	30 (19.9)

3.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우울의 차이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t=-2.921$, $p=.004$)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t=-2.605$, $p=.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우울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t=-3.871$, $p<.001$)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t=-2.948$,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우울과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에서는 아버지와의 폐쇄형 의사소통($r=.336$, $p<.001$), 어머니와의 폐쇄형 의사소통($r=.356$,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r=-.328$, $p<.001$),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r=-.238$,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아버지와의 폐쇄형 의사소통($r=.287$, $p<.001$), 어머니와의 폐쇄형 의사소통($r=.371$,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r=-.330$, $p<.001$),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r=-.319$, $p<.05$)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3.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든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의 결과 검정값은 1.73(스마트폰 중독), 2.03(우울)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이 만족되었다. 그리고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36~0.4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 값은 2.37~2.74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정성이 없음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점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잔차 분석결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분포 P-P도표에서 성형성이 확인되었다.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지각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4%였다.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beta=.272$, $p=.030$)과 어머니와의 폐쇄형 의사소통($\beta=.279$, $p=.028$)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대생의 우울에서 지각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 결과 설명력은 13.8%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폐쇄형 의사소통($\beta=.292$, $p=.022$)만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2. Difference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by Parent-Child Communication (N=151)

Variables	Categories	Smartphone Addiction		Depression	
		M±SD	t(p)	M±SD	t(p)
Father-child	Openly	33.86±7.15	-2.921 (.004)	13.29±8.31	-3.871 (<.001)
	Problematically	37.14±5.74		20.38±12.10	
Mother-child	Openly	34.17±7.07	-2.605 (.010)	14.13±8.86	-2.948 (.005)
	Problematically	37.30±5.68		20.27±12.59	

Table 3. Correlations among Percep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N=151)

Variables	Percep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Smartphone addiction	Depression
	1	2	3	4		
Percep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ernal openly	1.00					
Paternal problematically	-.602**	1.00				
Maternal openly	.753**	-.527**	1.00			
Maternal problematically	-.558**	.724**	-.661**	1.00		
Smartphone addiction	-.328**	.336**	-.238**	.356**	1.00	
Depression	-.330**	.287**	-.319*	.371**	.216*	1.00

* $p<.05$; ** $p<.001$

1= Paternal openly; 2= Paternal problematically; 3= Maternal openly; 4=Maternal problematically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Influence of Perception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N=151)

Dependent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B	SE	β	t	p
Smartphone Addiction	Percep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ernal openly	-.252	.115	-.272	-2.191	.030
	Paternal problematically	.072	.124	.069	.581	.562
	Maternal openly	.183	.126	.188	1.453	.148
	Maternal problematically	.324	.146	.279	2.222	.028
R ² =.167, Adj. R ² =.144, F=7.325, $p<.001$						
Depression	Percep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ernal openly	-.266	.177	-.188	-1.505	.134
	Paternal problematically	-.066	.190	-.041	-.346	.730
	Maternal openly	-.008	.193	-.005	-.041	.967
	Maternal problematically	.519	.224	.292	2.318	.022
R ² =.161, Adj. R ² =.138, F=6.978,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우울의 차이를 비교하고 자녀가 지각한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이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은 평균 35.08 ± 6.83 점으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20명(13.2%), 고위험 사용자군 17명(11.3%)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의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위험 사용군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한 43%보다 낮지만[21]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보고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인 22.3%과 비슷한 수준이다[6].

본 연구의 여대생들에게 나타난 우울 평균은 15.86 ± 10.45 점으로 Yoo 와 Kim [22]의 연구에서의 우울 평균 16.2 ± 10.92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능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은 38명(25.1%),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은 30명(19.9%)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의 45% 정도가 우울증상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우울의 정도를 확인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의 차이가 있다[23]. 따라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히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교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우울에 대한 사정 및 정도 평가를 통해 우울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인지한 여대생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라고 인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또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로 비교가 어렵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에서 부모-자녀 간 폐쇄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다는 것으로 나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스마트폰 비중독군이 중독군보다 부모님과 개방적인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하여 부모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인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아버지들이 주요 양육자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오늘날의 아버지는 자녀가 건강한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버지와의 친밀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5].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자녀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낮춘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의사소통 프로그램 연구에서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구분하여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스마트폰의 중독과 우울에 어머니와의 폐쇄형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으로서의 출발점을 통과하였지만 아직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기로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갈등을 유발하며[26], 이로 인하여 우울과 중독 등 정신적 건강문제를 유발하게 된다[27, 28]. 그러므로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머니는 초기 성인기에 들어선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재조정이 필요하며 자녀를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 자녀와 부모 간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영향을 받아 성별의 차이가 있었다[30].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부모와 여대생 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3개교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이외의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후속연구에서

는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경우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만을 측정하였으므로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함께 측정하여 비교해 보는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중독과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여대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스마트폰의 중독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대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포함하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KT Economic & Management Research Laboratory. "Mobile trend spectrum 2015. Issue and Trend Report" 2015.
- [2] J. D. Gutierrez, F. R. Fonseca, G. Rubio, "Cell-Phone addiction: A review", *Frontiers in Psychiatry*, vol. 24, no. 7, pp. 1-15, 2016.
DOI: <http://dx.doi.org/10.3389/fpsy.2016.00175>
- [3] J. Y. Park, S. E. Park, M. J. Park,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 pp. 218-229,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1.218>
- [4]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 2011.
- [5] S. Z. Ro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and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smartphone usage motivation affecting high-school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9, no. 4, pp. 659-691, 2013.
- [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nternet addiction survey in 2016", 2017.
http://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5914&bcIdx=18390&parentSeq=18390
- [7] S. H. Kim, K. U. Kim, "Change of cervical angle according to smartphone using ti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vol. 9, no. 2, pp. 141-149, 2014.
DOI: <http://dx.doi.org/10.13066/kspm.2014.9.2.141>
- [8] E. J. Bong, Y. K. Kim,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7, pp. 121-129, 2017.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7.18.7.121>
- [9] H. J. Park, E. S. Choi,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8, no. 3, pp. 280-290, 2017.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7.28.3.280>
- [10] B. N. Kim,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youth's sociality developmen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4, pp. 208-217,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4.208>
- [11] A. Moreau, S. Laconi, M. Delfour, H. Chabrol, "Psychopathological profiles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problematic facebook us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44, no. 1, pp. 64-69, 2015.
DOI: <https://doi.org/10.1016/j.chb.2014.11.045>
- [12] T. Y. Jung,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on relations among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8, pp. 253-279, 2015.
- [13] B. L. Lee, H. S. Ryu, "The effect on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happiness and creative personality o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vol. 16, no. 1, pp. 129-145, 2017.
- [14] H. C. Kwon, G. Y. R. Ahn,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 computer game overuse: Adolescent's self control as a mediating variab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5, pp. 255-274, 2015.
- [15] M. S. Yoon, N. H. Kim, W. K. Park, "The effects of game, leisure, family factors on the internet gam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4, pp. 309-337, 2014.

- [16] K. Choi, H. W. Kim, "The effect of father-adolescents communication, fa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11, pp. 313-340,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11.23.11.313>
- [17] H. L. Barnes, D. H. Olson,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vol. 56, no. 2, pp. 438-447, 1985. DOI: <http://dx.doi.org/10.2307/1129732>
- [18] H. Y. Min, "The relation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13, no. 1, pp. 112-124, 1992.
- [19]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1, no. 3, pp. 385-401, 1977. DOI: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20] K. K. Chon, S. C. Choi, B. C. 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Health*, vol. 6, no. 1, pp. 59-76, 2001.
- [21] G. S. Seo, S. Y. Bang,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life stress, and family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4, pp. 398-407, 2017.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7.18.4.398>
- [22] T. J. Yoo, S. S. Kim, "Impact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4, no. 2, pp. 127-135, 2015.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5.24.2.127>
- [23] S. S. Baek, J. Y. Cho,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on quality of lif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8, pp. 248-256, 2017.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7.18.8.248>
- [24] S. J. Lee, H. J. Moon, "Effects of self-contro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n smart-phone addic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2, no. 6, pp. 587-598, 2013. DOI: <http://dx.doi.org/10.5934/kjhe.2013.22.6.587>
- [25] J. M. Lee, E. H. Rho, Y. H. Kim, "Korean fathers' parenting style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participat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20, no. 3, pp. 331-346, 2016. DOI: <http://dx.doi.org/10.21459/kccr.2016.20.3.331>
- [26] K. J. Kwon, J. H. Ha,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steem on emotional-behavioral autonom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3, pp. 509-519, 2018.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8.19.3.509>
- [27] A. Nassehi, A. Arbabisarjou, M. Jafari, M. Ghasemi, K. Najafi, "Surveying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addiction with dependence on cell phone,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in collegians (case study: bam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Biotechnology and Research*, vol. 7, no. 3, pp. 2267-2274, 2016.
- [28] M. Samnha, N. S. Hawi,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lif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57, no. 4, pp. 321-325, 2016.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5.12.045>
- [29] S. G. Seo, J. H. Jeon, J. S. An, Y. S. Cho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fli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parents and university student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4, no. 4, pp. 971-990, 2015. DOI: <https://doi.org/10.15842/kjcp.2015.34.4.006>
- [30] S. E. Kim, S. H. S. Kim,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with parents and the level of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by gende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7, no. 2, pp. 239-256, 2016.

이 신 애(Shinae Lee)

[정회원]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 과정
- 1999년 8월 ~ 2011년 2월 :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시뮬레이션 교육, 기본간호, 보완대체요법

방 윤 이(Yun Yi B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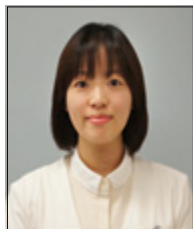
- 2002년 3월 ~ 현재 :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 간호사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간호학과 (임상전문간호학 석사)
- 2016년 3월 ~ 201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기초간호학 박사수료

<관심분야>

심·혈관질환 간호, 간호교육, 보완대체요법

임 윤 미(Yun-Mi Lim)

[정회원]



- 201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임상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기초간호, 성인간호, 보완대체요법

민 혜 영(Hye Young Min)

[정회원]



- 2015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부 (간호학 석사)
- 2017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여성건강, 스마트폰기반 건강교육

박 효 정(Hyojung Park)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5년 12월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간호학 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학, 성, 보완대체요법